

대한성형외과학회보

NEWSLETTER OF THE KOREAN SOCIETY OF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ONS

제116호
2019.4.30



대한성형외과학회
THE KOREAN SOCIETY OF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ONS

대한성형외과학회보

NEWSLETTER OF THE KOREAN SOCIETY OF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ONS

2019. 4. 30. Vol. 116 차 례

국제 학술대회 참관기

2019 California Palm desert ASRM 참관기_03

김용우 _ 광명성애병원



해외 의료봉사활동 후기

나의 세 번째 '국경없는 의사회' 활동 _ 07

김결희 _ BK성형외과



회원 에세이

가톨릭대 의과대학 성형외과학교실 입국식 _ 12

김준혁 _ 서울성모병원 임상강사



발전기금 기부 소식

최소침습성형연구회 _ 14

이데아 성형외과 국광식 원장 _ 14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_ 15



교실 및 회원 동정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_ 17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_ 18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_ 19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_ 21



국내외 학술대회 및 연구회 일정 _ 23



대한성형외과학회 회보 제116호

발 행 인 김광석 (이사장)

편 집 인 변재경 (홍보이사)

노복균 (홍보이사)

편집주간 이경태 (홍보위원회 간사)

편집위원 권영대, 김석원, 김영석, 김의식, 김종명, 나민화, 문석호, 박선형, 박지웅, 오태석, 이원재, 이진, 전영준, 정운혁, 최영웅, 최종우, 홍승은

발 행 일 2019년 4월 30일

출판기획 춘명 (02-2654-32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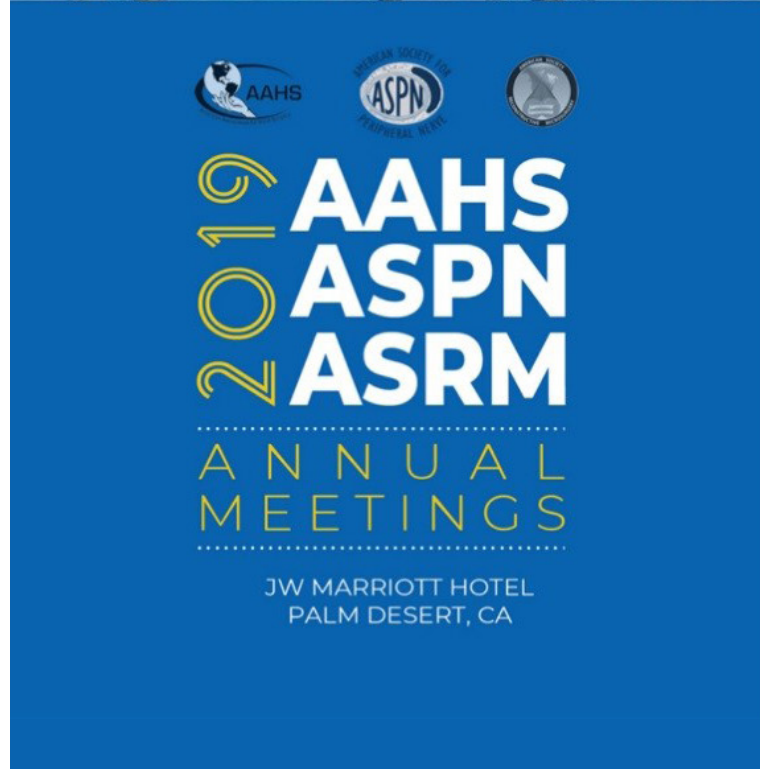
대한성형외과학회

www.plasticsurgery.or.kr

(04146)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101동 2003호(공덕동, 롯데캐슬프레지던트)
Tel. 02) 3472-4252 Fax. 02) 3472-4254

2019 California Palm desert ASRM 참관기

한국의 성형외과 저력을 세계적으로 발휘할 수 있었던 학술대회!



김 용 우 _ 광명성애병원

2019년 2월 1일부터 2월 5일까지 미국 California Palm desert에서 개최한 ASRM에 본원의 이동철 과장님과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2편의 e-poster를 제출하였으며, 본원에서 fingertip 재건의 workhorse flap인 Second toe pulp free flap을 발표하여 전 세계 microsurgeon에게 소개하였고, best case도 수상하는 영광을 얻으며 한국 성형외과 미세수술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전공의 4년차로서 그간 국내에서 하는 각종 성형외과 학회와 연관학회 및 국제학회에 참석한 경험은 많았지만 해외에서 개최하는 성형외과 연관학회 참석은 처음이었습니다. 같은 학회장에서 세 개의 학회가 함께 열렸는데 AAHS는 수부외과학회로 1월 30일 - 2월 2일, ASPN은 peripheral nerve 학회로 2월 1일 - 2월 3일 그리고 저희가 참석한 ASRM은 2월 1일 - 2월 5일까지였습니다. 둘째 날인 2월 2일에 이동철 과장님의 2nd TPFV 연좌가 있었고 셋째 날인 2월 3일에 best case인 '1 Toe for 2 Fingers of 3 Defects' 발표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동철 과장님과 저는 각각 한 편의 포스터를 제출하였는데, 4th common palmar digital artery perforator free flap과 Interphalangeal Joint Osteoarthritis after Replantation of "Pure" Degloving Amputation였습니다.

출발일인 2월 1일 인천공항에서 2시 반 비행기를 타고 11시간 비행 후 LA 공항에는 2월 1일 아침 8시 반에 도착하여 학회지인 palm desert로 이동하였습니다. LA 국제공항에 내려서 목

적지인 Palm desert까지는 약 220km로 차로 2시간 반가량 소요되었습니다. 호텔 이름은 JW Marriott desert springs resort & spa로 골프장과 수영장을 갖춘 휴양시설로 날씨는 매우 화창하였습니다. 호텔 내 ballroom에 위치한 학회장은 큰방 2개 (7번, 8번 room)와 작은 방 2개(F, G room)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8번 room에서는 대규모 lecture를 하는 방으로 500-700명 수용 가능한 크기였고 7번 room은 제약회사 booth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F, G room은 소규모 세션과 자유연제를 발표하는 방으로 큰방의 1/3에 못 미치는 크기였습니다. 학회장 복도 한 켠에는 마이크로 3대가 있어서 수시로 마이크로 training 시켜주는 공간이 있었고 e-poster는 복도 두 군대에 display되어 있었습니다.

학회장에서 처음 들었던 세션은 master series in microsurgery로 본원에서 논문 준비 중이기도 한 주제인 Controversial digital replantation을 주제로 접합을 할 것이냐 절단을 할 것이냐에 대한 강의였는데 최종적



인 Replantation indication으로 parts in kids, thumb, 그리고 multiple fingers not avulsed로 정의 내렸습니다. 본원에서는 절단 환자 대부분 모두 접합을 시행하고 있기에 한국과 미국 의료시장과의 문화적, 사회적, 의료제도적 차이로 수술의 적응증이 달라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둘째 날은 아침 7시 세션에서 이동철 과장님의 발표가 있었던 날입니다. 6시에 일찍 아침 식사를 하고 G room으로 이동하여 사전준비를 하였습니다. Innervated flaps: Restoring motor and sensory function to the upper extremity에 대해 3명의 연좌 중 두 번째 발표

였습니다. 아침 이른 시간의 첫 세션이었지만 50명 이상의 청중이 참석하여 이 세션의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Second toe pulp free flap을 소개하고 우수성을 발표하는 12분 정도의 강의였는데 본원에서는 workhorse flap이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널리 시행하지 않아서 그런지 청중들의 관심이 높았고 강의 중에 동영상을 찍는 선생님들도 계셨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청중 중에는 스테이지로 나와서 이동철 과장님께 술기에 대해 자세히 물어볼 정도로 Second toe pulp free flap에 대한 관심을 실감할 수 있었고 이번 발표를 계기로 세계 각지로 이 flap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었던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에는 Ann Compton이라는 미국 전 ABC 기자의 keynote lecture가 있었는데 40년간 백악관 출입기자로서 9.11테러 당시 조지 부시 대통령과 전용기에 탄 유일한 기자로 알려진 분으로 학회에 초청되어 lecture를 하였고 많은 참석자들의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저녁 6시부터는 welcome reception이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스탠딩바 형태로 식사 및 주류를 제공하였고 많은 인파가 모였습니다. 스테이크를 포함하여 뷔페식 식사가 제공되었고 주류는 1인당 2잔까지 제공하였습니다. 일본의 Koshima 선생님과 함께 식사하였고 ASPS chairman이신 Gregory evans 선생님과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이후 모임은 호텔 로비의 bar로 이



어나갔으며 많은 분들과 파티 분위기에서 친분을 쌓았습니다. Shanghai Ninth People's Hospital의 Yi-Xin-Zhang 선생님, Chang Gung Memorial Hospital의 Ming-Huei Cheng 선생님, Buncke clinic의 Gregory Buncke 선생님과 Bauback Safa 선생님, 그리고 다음 Italia WSRM chairman이신 Giorgio De Santis 학회장님도 뵈고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주로 논문 저자로 만나 뵈 수 있던 훌륭한 저명하신 surgeon을 한자리에서 뵈 수 있어 영광스럽고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셋째 날은 제일 일정이 많았던 날로 관광도 하고 기대를 모았던 best case 발표가 있던 날입니다. 아직 시차적응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



로 과장님과 저는 아침에 일찍 눈이 떠져서 숙소로부터 약 50분 거리에 위치한 Joshua Tree National Park를 방문하였습니다. Joshua tree라는 이름은 여호아가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모습 같아 보여 붙여진 나무의 이름인데 사막 동식물의 생태계가 보존되어 절경을 이루는 곳입니다. 밤하늘 별 보기로 유명한 곳으로 해 뜨기 전 5시 전에 출발하여 밤하늘을 보려고 했는데 가는 도중에 해가 떠버렸습니다. 아침 일찍이라 사람은 거의 없어서 마음 놓고 경치를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의 미국 서부 도로 위에서 보는 경치도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다웠습니다. 한눈에 담을 수 없는 넓은 평지와 눈이 쌓인 샌하신토산과 수많은 풍차들의 절경을 보니 트레이닝 기간 동안 쌓였던 체증이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학회장 복귀 후 오후 1시의 best case/best save 세션을 준비하기 위해 8번 방으로 향했는데, 학회의 하이라이트 세션인 만큼 시작 전부터 시상식을 방불케 하는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사회자인 Michael R. Zenn 선생님의 인사말로 세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심사위원은 세 분이었습니다. 텍사스 어린이병원의 William C, Pederson 선생님, 피츠버그의 Carolyn De La Cruz 선생님, 뉴욕의 Babak Mehrara 선생님이었습니다. 사전심사를 통해 선정된 best case 4인, best save 3인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듀크대학의 Detlev Erdmann 선생님의 Abdominal wall reconstruction 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15년도 ASRM best case 수상자인 텍사스 Beaumont병원의 Kongkrit Chaiyasate 선생님의 Total nasal

reconstruction이었습니다. Skin cancer로 비연골까지 모두 제거된 환자를 3stage로 복원한 case였습니다.

다음이 이동철 과장님 발표였습니다. 제목은 ‘1 Toe for 2 Fingers of 3 Defects’로 당시 청중의 수는 어림잡아 600-700명은 되어 보였습니다. 국제학회에서 수많은 발표 경험과 2017년 서울 WSRM best case 수상자이신 이동철 과장님도 이렇게 많은 청중들 앞에서는 긴장하신 모습이었습니다. 6분 정도의 Second toe를 3등분하여 피아니스트 손의 3 functional defect를 재건한 case였는데 특히 Second toe flap을 3등분하는 부분에서는 관객이 술렁이더니 조용했던 학회장에서 갑자기 박수갈채가 쏟아져서 모두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재건된 피아니스트의 연주장면에서는 큰 박수가

쏟아졌고 눈물을 흘리는 분도 계실 정도로 감명 깊은 발표였습니다. 압도적인 청중 호응과 함께 심사위원의 점수도 10점, 10점, 9점으로 최고점 이었습니다.

마지막 발표는 Colorado children's hospital의 Fred Deleyiannis 선생님의 dog eaten child의 재건이었습니다. 개에 물려서 좌측 안면부와 scalp에 심한 결손이 있는 환아를 multistage reconstruction한 사례로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로 보였습니다. 4인의 발표가 끝나고 심사위원 투표와 청중 투표가 합산되어 바로 심사결과를 발표하였고, 이동철 과장님께서 68%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best case를 수상하였습니다. 세션이 끝나고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셨고 다시 한 번 한국의 성형외과의 저력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었던 계기가 되어 함께



온 저로서는 이동철 과장님이 매우 자랑스러웠습니다.

이날은 미국에서 제일 큰 스포츠 경기인 super bowl day로 이후 시간은 모든 사람이 8번 룸에 모여서 함께 경기를 시청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경기는 1억 명 이상이 시청하는 단일 경기로는 월드컵 결승전과 비견되는 경제효과가 있는 경기라고 하는데 다른 일정이 없는 관계로 이동철 과장님과 저는 Palm springs로 이동하여 또 하나의 관광명소인 Aerial tram으로 향하였습니다. Palm desert에서 차로 30분 가량 걸리는 가까운 지점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해발 2,750m인 백두산보다 높은 San Jacinto

산 정상 부근까지 10분간 탑승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360도 회전형 케이블카로 유명한 곳입니다. 정상에 올라가서 Palm springs의 전망을 한눈에 담고 저녁식사를 하고 숙소로 복귀하였습니다.

사실상 마지막 날인 월요일에는 발표도 다 끝나고 비교적 마음이 편한 날이었습니다. 새벽에 눈이 일찍 떠져서 전날 못 본 밤하늘을 보기 위해 새벽 3시에 다시 Joshua Tree National Park로 향했습니다. 한국에서 보지 못할 만큼 수많은 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2018년 Godina fellow인 Shanghai Ninth People's Hospital의 Yi-Xin-Zhang 선생님의 Godina lecture가 있

었습니다. Marko Godina는 reconstructive microsurgery의 개척자로 평가 받으며 미세수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슬로베니아 plastic surgeon으로 43세에 교통사고로 아내와 함께 비극적으로 사망하였는데 이분을 기리기 위해 재단을 만들어 후원금을 지원받아 ASRM에서 선정된 한 명의 microsurgeon은 1년간 전 세계 각지의 microsurgical center를 돌며 수련하게 됩니다. 매년 ASRM에서 Godina fellow의 1년간의 전 세계 미세수술 경험을 발표하고 수료하는 lecture가 있습니다. 저녁 7시에는 Gala Dinner에 참석하였습니다. Best case 수상 후 이미 유명인사가 된 이동철 과장님께 많은 분들이 먼저 인사를 건네셨고 친분을 나누며

학회의 마지막 밤을 빛냈습니다.

학회 마지막 날인 화요일에는 아침 일찍 LA 공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전 세계 microsurgeon이 모인 자리에서 자랑스럽게 본원의 Second toe pulp free flap을 소개하고 best case까지 수상하게 되어 한국 성형외과 학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된 이 자리에 제가 함께할 수 있어 영광스럽고 기억에 남는 학회였습니다. 세계 각지의 성형외과 의사들이 의학지식을 공유하고 친분을 쌓는 ASRM 참석을 통해 저 또한 전문을 넓히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형외과 선생님들께서 국제학회에 진출하여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 함께 나아가길 기원합니다. 🌍

나의 세 번째 ‘국경없는 의사회’ 활동 - 팔레스타인 가자지역(Gaza Strip)!



김 결 희 _ BK성형외과

국경없는 의사회와 일하면서 의사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낀 덕목이 유연성(Flexibility)이다. 접하지 못했던 환자군, 제한적인 수술 기구/재료, 처음 손을 맞춰보는 인력들과 일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 경험을 바탕으로 유연하게 적응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나와 ‘국경없는 의사회’와의 인연은 2014년 보스턴에서 펠로우십을 마치는 시기에 미국 국경없는 의사회 사무국을 통해 지원을 하게 되면서 시작되었다.

국경없는 의사회 구호 활동가로 선발되기 위한 뉴욕 사무국에서의 채용설명회 참석, 서류 면접, 대면 영어 면접, 참고인 조사 등 여러 단계를 거쳐 활동가(Expatriate) 인력으로 등록되었다.

그러나 다음 펠로우십 일정 관계로 2년 동안 구호 활동을 나가지 못하였다. 국내에서도 매년 국경없는 의사회 채용 설명회가 있고 현재는 그곳에서 나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국제 봉사 뜻이 있는 열정적인 의사분들을 만나고 있다. 뜻은 있으나 막상 국경없는 의사회와 활동하지 못하게 되는 가장 큰 장애물은 고소득이 보장되고 지속적으로 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직업인으로서의 의사가 한두 달간 자리를 비우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나의 경우는 2016년 미국에서 국내로 진료 환경을 바꾸면서 시간을 낼 수 있는 시기가 왔고 이전에 이미 활동가 인력으로 등록이 되어 있었기에 미션 참여가 가능함을 사무국에 알려 시기에 맞는 미션을

미리 배정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 계기가 되어 2016년 아이티로 첫 번째, 나이지리아로 두 번째 미션을 다녀왔다.

이후 한국 국경없는 의사회 소속으로 변경되어 한국 활동가 선생님들, 사무국 분들과 교류할 수 있었다. 워낙 유럽 쪽 활동가가 많은 국경없는 의사회이기에 실제 미션을 나가면 한국분들과 일하는 기회가 극히 드물다. 국내 활동가 선생님들과 현장에서 함께 활동하지는 않았지만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미션을 향한 나의 향수를 자극한다. 활동가들끼리는 ‘국경없는 의사회와 일하는 것은 중독이다’라는 말을 한다.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있으나 한 번만 미션을 가는 사람은 없다는... 물론 의료 환경이나 생활 환경이 안락하지는 않으나 나를 기다리고 있을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 미션지에서 느끼는 경험, 그리고 그 경험에서 오는 보람이 중독을 일으키는 것이리라.

그러나 나 또한 국내 개인 병원에서 봉직의로 일하면서 시간을 내기란 쉽지 않은 것이었다. 그러다 이직을 결심하게 되었고 이 시기가 미션을 다녀올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되어 사무국에 미션 참여가 가능함을



이스라엘에서 가자지구로 들어가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1km 길이의 터널.
치안이 좋지 않아 숙소에서 병원까지는 항상 방탄차를 타고 이동한다.



치료를 기다리는 환자들

알렸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하지 재건을 할 수 있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

많은 분들이 안전에 대해 걱정을 하시리라 생각된다. 실제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들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역사적으로도 이스라엘과 이집트 간의 영토 분쟁지였으며 현재는 길이 약 50km, 폭 5-8km의 가늘고 좁은 지역(Strip)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고 바다를 포함한 사방에 이스라엘 군이 병력 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對)이스라엘 시위가 자주 발생하고 이스라엘 군의 시위대를 향한 총격, 폭탄 투하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다.

미션을 제안 받자마자 나는 또 들떠 있었다. 이미 가자지구로 활동을 다녀오신 활동가 선배님들에게 전화하여 그곳의 상황과 환자군의 특성, 갖춰진 수술 기구들과 가능한 기술들을 문의하기 시작했다. 남편은 이미 두 번의 미션지로 나를 떠나보낸 적이 있는 경험이 있어서인지 이제는 담담히 받아들였다. 실제로 활동가들의 안전은 국경없는 의사회 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이다. 안전한 것을 알고 있기에 남편은 이슬람 문화에 대한 별 경험이 없는 나를 위해 이것저것 자신의 경험을 공유해 주기도 했다.

터키 이스탄불에서 경유를 하고 이스라엘

Tel Aviv-Yafo 공항에 착륙하였다. 가자 지구는 이스라엘을 거쳐야 들어갈 수 있다. 이스라엘 공항에 도착하여 ‘MSF(Médecins Sans Frontières, 국경없는 의사회, 불어) 팻말을 들고 있는 운전 기사를 만나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예루살렘 숙소에서 하루를 머물고 나면 다음 날은 가자와 이스라엘 사이의 접경 지역을 통과하게 된다. 외국인들에게도 왕래가 매우 어렵고 특히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밖으로 나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여 ‘세계에서 가장 큰 감옥(The World largest Prison)’이라 불리우는 가자지역 안으로.

가자지역 안으로 들어가는 동안 경비가 매우 삼엄했다. 어떤 촬영도 불가능하고, 인도해 주는 MSF직원들은 눈에 띄는 행동을 절대 하지 말 것을 수 차례 경고한다. 높다란 콘크리트 담으로 막힌 가자와 이스라엘 사이 장벽의 유일한 통로인 황무지 한복판을 뚫고 끝없이 멀어 보이는 복도를 통과하면 드디어 가자지구에 발을 들여놓게 된다.

가자 지구에 있는 MSF 캠프는 인력 변화가 항상 있기는 하지만 약 40-50명의 활동가들이 근무하는 비교적 큰 프로젝트에 해당된다. MSF는 의료 구호활동을 하는 단체지만 미션지에서는 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진들뿐 아니라 비의료진과도 함께 활동하게 된다. 무력분쟁지역, 전염병 창궐지역, 자연재해

지역 등의 의료 사각지대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필요한 기술/관리 지원, 물자 주문/구입/수송/저장, 차량, 통신장비, 기계 관리 등을 해 줄 수 있는 로지스티션 (logistician)뿐만 아니라, 많은 인력과 재정을 관리할 인사 및 재무 담당자들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미션지에서 모든 활동가들은 한 숙소에서 생활하게 된다. 미션지의 상황에 따라 각자의 방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한 방에 여러 활동가가 병커 침대를 사용하며 함께 생활하기도 한다. 가자지구에서는 현지 활동 경력이 많으신 60대 영국 여성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과 함께 방을 사용했다. 각자 수술을 마치고 돌아오면 케이스를 상의하고 수술 플랜에 대해 조언을 묻고 예전 케이스들을 리뷰하여 정말 좋은 룸메이트였다는 생각이 든다.

가자지구에서 MSF는 여러 병원에서 진료, 수술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나는 가자지구 남쪽에 위치한 Dar Essalam 병원에서 근무하게 됐다. 매일 아침 8시면 숙소에서 방탄차를 타고 20-30분을 달려 병원으로 출근을 한다. 가자 지구는 치안이 안정적이지 않아 숙소 인근을 제외하고는 개인적으로 걸어 다닐 수 없고 항상 동반자와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해야 한다. 병원에 도착하면 하루 스케줄을 확인하고 일과가 시작된다. 전형적인 환자들은 하지, 특히 무릎 아래 부위에 총상을 입은 남자 환자들이다. 매주 금요일이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스라엘 점령 지역에서 시위를 하고 이스라엘 군대는 시위대의 무릎 아래를 조준해 사격을 한다. 나도 처음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전쟁에서는 머리카락을 조준하여 한 사람을 사살하는 것보다 한 명을 불구로 만들게 되면 불구가 된 사람을 이동시키기 위해 두 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많은 병력 손실을 일으킨다고 한다. 이슬람 문화상 외부 활동은 주로 남자들만이 할 수 있어 남성 하지 총상 환자들이라는 전형적인 환자군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교통사고 등 종아리의 개방성 골절은 흔하지만 총상에 의한 하지 손상은 거의 볼 수가 없다. 가자 환자들의 총상은 작은 원형의 금속 물체(총탄)가 다리 한 쪽에 입사구, 반대측에 큰 연주조직 결손이 동반된 출사구를 만들며中间的 뼈는 분쇄시켜 버리는 개방성 분쇄상 골절을 만들게 된다. 결국 이러한 손상은 뼈의 골절 유합, 그리고 입사구와 출사구의 연부 조직 재건이라는 공통적 난제를 갖고 있다. 가자 지구는 이러한 손상의 특성상 정형외과의와 성형외과의가 협동 수술을 하게



다리에 총상을 입은 젊은 남자환자라는 특정한 환자군을 가진 가자지구에서 대부분의 수술은 하지재건술이다.

된다. 정형외과의가 뼈의 결손을 메꾸고 외부 고정기로 alignment를 만들면 성형외과의가 피부 이식이나 근육-피부판, 근육피판으로 연조직 결손을 메꾸는 것이다. 특히 개방성골절은 노출된 뼈에서 비롯되는, 결국은 절단으로 귀결되는 골수염이라는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에 노출된 뼈를 건강한 조직으로 덮어주는 재건 수술이 중요하다.

입원 시설이 없어 모든 수술 환자가 당일

퇴원하고, 미세 현미경이나 수술기구, 재료가 없기에 MSF는 오히려 큰 결손을 발생시킬 수 있는 미세수술은 금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수술은 피부이식 또는 피부판술(Gastrocnemius flap, Soleus flap, Reverse Soleus flap, Peroneus flap, Lateral supramalleolar flap 등)이 이루어진다. 사실 국내에서 이런 케이스들을 본다면 모두 미세수술의 적응증이 될 것이다. 그러나 X-ray도 수상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인 가자지구에서는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희망이다.

당시의 것만이 있고 Angio-CT등은 기대도 할 수 없으며 수술 기구도 정형외과에 준하여 갖추어져 있으니 현대의 첨단 진단, 치료 장비를 이용한 진료만 해 온 의료 선진국의 의사로서는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다. 그래서 MSF와 일하면서 의사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낀 덕목이 유연성(Flexibility)이다. 접하지 못했던 환자군, 제한적인 수술 기구/ 재료, 처음

손을 맞춰보는 인력들과 일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 경험을 바탕으로 유연하게 적응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총상은 체내에서 터진 총알의 파편 조각들이 연조직에 산재해 있어 염증의 가능성이 있기에 바로 재건 수술을 하지 않는다. 환자들은 수상 직후 외부 고정기로 뼈 고정을 받고 열린

상처는 여러 번의 debridement를 거쳐 감염의 가능성이 없을 때 재건 수술을 시행한다. 하루에 약 7-8개의 수술을 시행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 시간은 없고 대기 환자는 많고... 플랩수술로 예약되어 있어 상처를 열어보면 장기간 기다리면서 오래 드레싱 치료를 받아 granulation tissue가 자라 피부 이식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웃지 못할 상황이 있기도 하고, 오랜 열린 상처로 골수염으로 진행되어 절단이 불가피한 상황이 있기도 하다.

이런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극적인 상황에서 환자들의 태도가 매우 절망적일 것 같지만 반대로 환자들은 자신이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나을 수 있다는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처음 국경없는 의사회에 지원하고 미션에 나가면서 나 자신에 대해 가장 걱정했던 점은 환자들의 그런 비극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생각해 보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만난 환자들은 오히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서 우리보다 정신적으로 더 강하다고 느끼게 된다.

또 다른 경험은 각각의 미션 지역마다 다른 문화이다. 무슬림들은 하루에 다섯 번의 기도를 하는데 바쁜 수술방 상황에서도 로컬 간호사들은 정해진 시간에 맞춰 기도를 한다. 새벽 다섯 시에도 숙소 옆 사원에서 기도하는

소리에 맞춰 기상을 했는데 수술 중간 중간에도 바닥에 자리를 깔고 기도를 올리는 간호사들을 볼 수 있다. 옆 회복실에서 기다리는 환자도 당연한 일인 것처럼 느긋하게 기다린다. 미션이 끝나갈 때쯤 이해할 수 없는 기도 소리에 왠지 모를 마음의 평온함을 느끼게 되었다. 다른 문화권에서 일하며 그들을 충분히 이해할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은 국경없는 의사회와 일하며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경험 중 하나이다. ‘여행은 살아보는 것’이라는 광고가 있다. 현지인들과 일하며 살아보는 것. 이러한 심도 있는 문화 경험이 또 있겠는가!

현지인들과의 문화 교류도 경험이지만 다른 여러 국가들에서 파견되어 온 활동가들과의 생활, 일도 경험이다. 언어 장벽이 있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언어의 문제보다는 열린 마음의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MSF는 불어를 주로 사용하는 미션과 영어를 주로 사용하는 미션으로 나누어진다. 나도 영어만 가능해 영어를 주로 사용하는 미션에 참가해 왔다. 앞서 말했듯이 유럽에서 온 활동가들이 많은데 생각해 보면 그들에게도 영어는 제2외국어이다. 언어가 적응 능력이나 일의 퍼포먼스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면 북미 또는 영국에서 온 이들이 사회생활이나 일적으로도



때 맞춰 그들의 신께 기도하는 로컬 간호사들과 기다리는 환자

뛰어나야 한다. 그러나 실제 숙소에서 분위기를 주도해서 모임을 만들고 일적으로도 조율을 잘하는 이들은 언어가 뛰어나다기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분들이다. 언어는 남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고 본다.

가자에서 3주 동안의 미션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그동안 친해진 로컬 간호사, 의사들을 두고 가자지구로 나오려니 다른 미션과는 다른 기분이 들었다. 아이티와 나이지리아도 2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다시 방문하지는 못했지만, 떠날 때는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높은 담과 철망으로 봉쇄되어 있는 가자지구를 떠나 오려니 왠지 다시 그들을 볼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오늘은 나만 이곳을 나가지만 언젠가는 그들이 세상에서 제일 큰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기를... 그래서 내가 다시 이곳으로 오기보다는 더 넓은 세상에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육중한 철문을 통과해 나왔다.

국경없는 의사회는 구호 활동가를 수시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국경없는 의사회 구호 활동가 채용 페이지
<https://msf.or.kr/work-field>

매년 채용설명회가 있어 채용 절차에 대한 안내와 직접 미션을 다녀오신 분들의 경험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채용설명회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에 나온 정보에 따라 언제든지 지원 가능합니다. 1-2개월의 단기 파견도 가능하고 적은 액수지만 정해진 기준에 따라 국내외 교통비, 숙박비, 예방접종, 보험(건강보험, 의료 문제로 인한 귀국 등), 현지 숙박비도 제공됩니다. 트라우마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재건수술의 수요가 얼마나 많을지 성형외과 전문의 분들은 쉽게 예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국경없는 의사회 한국 사무소 활동가 중 성형외과 전문의는 저밖에 없는 실정이기에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구호 활동가로 직접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 후원이나 후원 병원으로 참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경없는 의사회 홈페이지(www.msf.or.kr)를 방문해 확인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2019년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성형외과학교실 입국식



김 준 혁 _ 서울성모병원 임상강사

“입국식은 또 하나의 의미 깊은 처음의 순간이 되리라”

처음이란 건 무엇이든 의미 깊게 만들어 준다. 매 해 맞이하고 오면 불편해질 뿐인 눈도 첫눈이라는 이름을 달면 이에 관대해져 괜히 마음이 들뜨고 지인들에 연락을 전하게 된다. 첫 환자나 첫 수술도 첫사랑 못지 않아, 아주 오래전 첫 수술로 집도한 선배들의 현상이 이야기는 아직도 생생하고 그 순간의 마음은 공감대를 쉽게 얻는다.

2019년 3월의 첫 주. 가톨릭대학교 성형외과학교실은 입국식을 열어 교실에 처음으로 함께하게 된 전공의들과 교원으로 처음을 시작하는 신입 교원들을 축하하고 환영하는 자리를 가졌다. 늘 그렇듯, 신입 전공의들은 한껏 격식을 차린 옷차림으로 제일 앞 테이블에 붙박히듯 몰려 앉아 긴장한 채 실수하는 건 없을지 매무새를 계속 고친다.

성형외과라는 영역에 처음으로 발을 내딛으며 시작하는 그들의 마음이나 생각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몇 년 전 나와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 입국식은 처음을 맞은 그 순간이 중요하고 귀하다 생각해서 많은 동문 선배님들도 참석해



신입 전공의 자기소개

주셔서 그들을 축하하고 일원으로 받아 주는 자리일 것이다. 어쩌면 결이 같은 의국 생활의 연장선이면서도 또 다른 사람이 되어 신입 교원으로서, 전문의로서, 새로운 시작을 한 나에게도 입국식은 또 하나의 의미 깊은 처음의 순간이 될 것이다.

이날은 30주년 근속을 하신 이종원 교수님과 10주년 근속을 하신 이중호 교수님께 축하를

드리고 기념을 하는 시간도 가졌다. 두 분이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건 ‘옛그제’ 같으시다는 거다. 입국을 하신 게, 졸국을 하면서 처음 수술을 하신 게, 그 간의 과정이 전부. 꾸준하면서 변함없이 의료인으로서 시간을 쌓으시고, 또 감히 못 넘볼 굉장한 성과를 쌓으신 그 시절이 다 옛그제 같다고.

시간이 지나고 언젠가 나도 ‘옛그제’ 같았던



신입 교원으로서의 자기소개

시간을 되뇌일 날이 올 때, 나는 누군가들의
처음을 바라보며 그들이 그 마음을 지녀 나가길
바라는 생각을 하게 될까, 아니면 나도 언젠가
그랬었는데 부질없었다고 조소섞은 눈길을
가지게 될까. ‘옛그제’ 같지만 수많은 좋은 일과
그렇지 못한 일들 속에서 나의 첫 마음을 잘
지녀 갈 수 있을까. 🌈

대한성형외과학회 발전을 위해 1천만 원 기부 최소침습성형연구회(회장 강원경)



최소침습성형연구회(회장 강원경)에서 2018년 10월 31일 대한성형외과학회 발전기금으로 1,000만 원을 지정 기탁하셨습니다.

최소침습성형연구회는 2004년 창립되어 최소침습성형을 성형외과 영역에 적용함에 있어 기초적인 학문 연구와 지식과 경험의 교류를 통해 미용성 진료의 질을 높이고자 관련 국제학술대회 및 집담회,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고 최소침습성형에 관한 도서 및 기타 간행물 발간으로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부해주신 기금은 학회의 위상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용되기를 원하셨으며, 특히 최소침습성형연구회의 해외 초청 연자 지원을 위한 지정기금으로 쓰이기를 희망하셨습니다.

기부하신 소중한 뜻을 받들어 학회와 회원들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대한성형외과학회

대한성형외과학회 발전을 위해 1천만 원 기부 이데아 성형외과 국광식 원장



국광식 원장님께서 2018년 11월 2일 대한성형외과학회 발전기금으로 1,000만 원을 지정 기탁하셨습니다.

전북의대를 1984년에 졸업하시고 1992년에 국군수도병원 성형외과 수련을 수료한 국광식 원장님은 현재 이데아 성형외과에서 진료를 하고 계시며, 대한성형외과학회와 지방성형·지방줄기세포연구회에서 평의원 및 학술고문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특히 지방성형 분야에서의 수많은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한 국내외 논문 발표 및 학회 강연을 통해 지속적으로 활발한 연구 및 진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국광식 원장님은 이번 발전기금이 학회의 위상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용되기를 원하셨으며, 특히 지방성형연구회의 지정기금으로 쓰이기를 희망하셨습니다.

기부하신 소중한 뜻을 받들어 학회와 회원들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대한성형외과학회

대한성형외과학회 발전을 위해 5백만 원 기부 홍성철 성형외과 홍성철 원장



홍성철 원장님께서 대한성형외과학회 발전기금으로 500만 원을 지정 기탁하셨습니다.

고려의대를 1984년에 졸업하시고 고려대학교병원 성형외과 수련을 1993년에 수료한 홍성철 원장님은 현재 홍성철 성형외과에서 대표원장으로서 진료를 하고 계십니다.

홍성철 원장님은 이번 발전기금이 학회의 위상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용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기부하신 소중한 뜻을 받들어 학회와 회원들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대한성형외과학회

대한성형외과학회 발전을 위해 5백만 원 기부 신데렐라 성형외과 정종필 원장



정종필 원장님께서 대한성형외과학회 발전기금으로 500만 원을 지정 기탁하셨습니다.

고려의대를 1995년에 졸업하시고 고려대학교병원 성형외과 수련을 2001년에 수료한 정종필 원장님은 현재 신데렐라 성형외과에서 원장으로서 진료를 하고 계십니다.

정종필 원장님은 이번 발전기금이 학회의 위상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용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기부하신 소중한 뜻을 받들어 학회와 회원들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대한성형외과학회

대한성형외과학회 발전을 위해 5백만 원 기부 디자이너 성형외과 박수완 원장



박수완 원장님께서 대한성형외과학회 발전기금으로 500만 원을 지정 기탁하셨습니다.

고려의대를 1997년에 졸업하시고 고려대학교병원 성형외과 수련을 2002년에 수료한 박수완 원장님은 현재 디자이너 성형외과에서 원장으로서 진료를 하고 계십니다.

박수완 원장님은 이번 발전기금이 학회의 위상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용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기부하신 소중한 뜻을 받들어 학회와 회원들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대한성형외과학회

대한성형외과학회 발전을 위해 5백만 원 기부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성형외과 김덕우 교수



김덕우 교수님께서 대한성형외과학회 발전기금으로 500만 원을 지정 기탁하셨습니다.

고려의대를 1999년에 졸업하시고 고려대학교병원 성형외과 수련을 2007년에 수료한 김덕우 교수님은 현재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성형외과학교실에서 진료를 하고 계십니다. 김덕우 교수님은 성형외과학 분야에서의 수많은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한 국내외 논문 발표 및 학회 강연을 통해 활발한 연구 및 진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김덕우 교수님은 이번 발전기금이 학회의 위상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용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기부하신 소중한 뜻을 받들어 학회와 회원들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대한성형외과학회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성형외과학교실

제2회 전공의 워크숍 개최



2019년 2월 22일, 23일 양일간 구미 금오산에서 '제2회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성형외과학교실 전공의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2018년 2월 '제1회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성형외과학교실 전공의 워크숍'이 팔공산에서 있었고, 이후

로 두 번째를 맞이하는 전공의 워크숍에서는 신입 전공의의 소개와 전공의의 수련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과 개선사항에 대한 간담회가 있었으며, 이튿날에는 금오산을 등정하며 선후배 간의 돈독한 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성형외과학교실 전임의 환송회

2019년 3월 5일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성형외과학교실 전임의 환송회를 시행하였습니다.

본 교실에서 2019년 2월까지 7명의 전임의가 근무하였고, 그 중 4명의 전임의(최동식, 김재봉, 정규식, 강규빈)가 3월부터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어 따뜻한 격려와 감사패를 전달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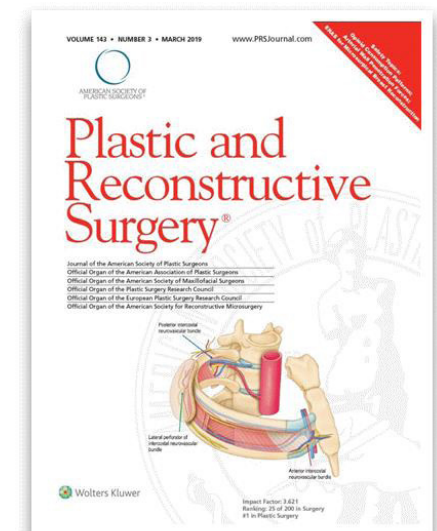
또한 2019년 3월 전임의(김진수)가 경북대학교 성형외과학교실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양정덕 교수 발표 논문, 미국 성형외과 학회지(PRS) 표지논문으로 선정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성형외과 양정덕 교수가 발표한 논문이 2019년 3월 미국 성형외과 학회지 "Plastic & Reconstructive Surgery(PRS)"에 표지논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논문은 유방암 환자에게 유방보존술 시행 후 발생하는 결손부에 외측간동맥 천공지 피판술 (Lateral Intercostal Artery Perforator Flap)을 활용한 두 가지 수술 방법에 대한 결과를 비교하여 유방 재건술의 유용성을 분석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성형외과학교실

환자 치유의 소망을 담은 최첨단 새 병원,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개원!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이 2019년 4월 15일 최첨단 새 병원을 개원하였습니다. 1899년 대구의 중심지에서 ‘제중원’으로 시작한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은 119년 ‘메디컬 프론티어’ 정신을 이어 대구의 서쪽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에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이어갑니다.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내에 개원하는 새 병원 이름은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으로 현재의 이름을 그대로 이어가며 현재의 병원은 ‘대구동산병원’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새 병원은 대지 40,228.4㎡(12,169.03평), 연면적 179,218.41㎡, 지하 5층, 지상 20층의 1,041병상을 갖춘 지역 최대 규모의 의료기관으로 존스홉킨스병원 등 세계적 수준의 미국 병원 8곳을 모델로 하여 ‘환자 최우선’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건물은 ‘치유의 손’, ‘교감의 손’, ‘기도의 손’을 표현해 이른바 ‘감동의 손길이 함께 하는 치유의 동산’ 콘셉트를 반영하여 외관은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모습이며, 환자 치유의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의 성서 개원과 함께 현 동산동 병원도 2차 종합병원인 ‘대구동산병원’으로 재개원합니다. 대구동산병원은 210병상 규모에 20개 진료과를 개설하고, 특히 만성질환, 심뇌혈관진료, 신장 및 혈액투석, 고위험산모·신생아 집중치료, 소



화기진료 등을 특성화하고, 응급실을 찾는 급성기 환자들의 신속한 진료와 만성질환자 진료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본 교실의 손대구 교수가 대구동산병원의 병원장으

로 위임받아 동산병원의 명맥을 이어나가며 성형외과 또한 대구동산병원에 외래를 개설하여 두 곳의 병원에서 더 발전된 모습으로 환자들을 진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권배 동산의료원장은 “새 병원 건립으로 그동안 대학병원이 없었던 달서구와 경북 인근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또한 현 동산동에 대구동산병원이 남아 유기적인 진료가 이루어진다. 대구의료의 역사를 이끌어온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이 새 병원 건립과 함께 메디시티 대구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새 역사 창조에 헌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본 성형외과학교실에서는 병원 이전에 따르는 휴진 기간을 이용하여 2019년 4월 8일, 9일에 걸쳐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미세현미경 실습 및 프레쉬 카데바를 이용한 안면임상해부 실습을 가졌습니다. 정운혁 교수와 오상호 임상조교수의 지도 아래 8명의 전공의들이 모두 참가하여 미세현미경 수술의 술기를 습득하고, 안면부위에 대한 해부학적 견문과 지식을 넓히며 그에 따르는 수술적 접근법을 고찰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렇듯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성형외과학교실은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더 나은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며 현재의 대구동산병원에서 또한 본 교실에서 이제껏 그래왔듯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따뜻한 손길과 사랑을 지속적으로 널리 알리는 데 힘쓸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성형외과학교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성형외과학교실 2019년 신년 하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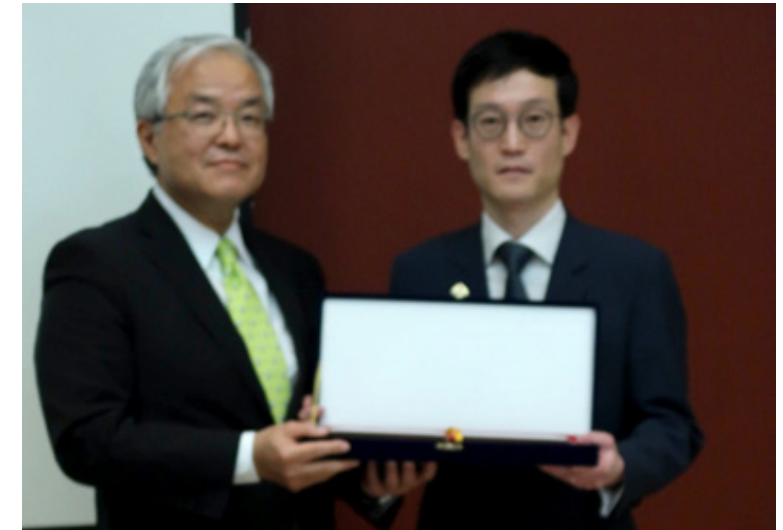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성형외과학교실(주임교수 백룡민)에서는 2019년 1월 11일 저녁 7시에 서울대학교 의생명연구원 가든뷰에서 신년 하례식을 개최

하였습니다. 원로교수님, 의국교수, 동문, 전공의가 모두 참석하여 희망차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9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성형외과 수료식

2019년 2월 22일 저녁 7시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성형외과 전임의 및 전공의 수료식이 포스코 휘닉스 중식당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하며, 수료패 증정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2019년 3월 1일부터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게 된 분당서울대학교 박창식 교수의 환송식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박창식 교수의 밝은 미래를 염원하는 의국원들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증정하였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성형외과학교실

2019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성형외과 입국식



2019년 3월 22일 저녁 7시 강남 대려도 중식당에서 2019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성형외과 전공의 및 전임의 입국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주임교수와 3개 병원 과장의 환영인사에 이어 신입

전공의 5명과 전임의 7명이 자기소개와 함께 앞으로 의국원으로서 각오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장학 교수, 서울대학교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 임명

장학 교수가 2019년 1월 서울대학교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에 1년 6개월 임기로 임명되어, 국제진료

관련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권성택 교수,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장 및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 임명

권성택 교수가 2019년 4월 6일 1년 임기의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권성택 교수는 2019년 4월 1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에 2년 임기로 임명되었습니다.



허찬영 교수, “한국생체재료학회 시지바이오 중견연구자상” 및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 우수발표상” 수상

2019년 3월 29일 개최된 한국생체재료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허찬영 교수가 생체재료의 발전 및 연구 활동에 탁월한 업적이 인정되어 “시지바이오 중견연구자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2019년 4월 6일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와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공동 주관한 Aesthetic Plastic Surgery 2019에서 허찬영 교수가 작년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연부조직 수복을 위한 하이드로겔 필러 개발’에 대하여 “Aesthetic Plastic Surgery 2018 우수발표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성형외과학교실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성형외과학교실 입퇴국식

2019년 2월 14일 저녁 역삼동 파크 루안에서 각 병원 교수 및 전공의, 의국 선배들과 함께 새내기 전공의들의 입국식, 4년차 전공의들의 퇴국식 및 사은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이주호(강남), 윤현종(강동), 설성훈(한림) 신입 전공의들은 자기소개와 성형외과 의사로서 첫발을 내딛는 데 대한 다짐과 포부를 발표하여 많은 응원을 받았습니다.

한림대학교 의료원 성형외과학교실의 일원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앞으로 성형외과의 미래를 이끌 수 있는 훌륭한 성형외과 의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전문의 시험에 모두 합격한 이준원(강남), 나웅규(한림) 4년차 전공의들은 전문의로서의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실력을 열심히 키워 한림대학교 성형외과학교실을 빛낼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기대합니다.



성형외과학교실 인사이동

주임교수로서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성형외과학교실을 이끌어 주신 서인석 교수님(강남성심병원 성형외과장)께서 2019년 3월 1일부로 이종욱 교수님(한강성심병원 성형외과장)에게 주임교수를 위임하였습니다.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교실을 위해 애써주신 서인석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롭게 주임교수를 맡으신 이종욱 교수님께서 교실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전 교실원이 힘을 모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성형외과에서 재직하던 고성훈 교수님(연세의대 졸업)께서 2019년 2월 28일부로 퇴임하였습니다.

후임으로 정찬민 교수님(경희의대 졸업)께서 2019년 3월 1일로 진료를 시작하였습니다.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성형외과학교실

淨泉 서인석 교수님의 정년 퇴임식



2019년 3월 2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淨泉 서인석 교수님의 정년 퇴임식이 있었습니다.

서인석 교수님은 1973년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9년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1984년 경희의료원 성형외과학교실에서 전공의 수련을 시작하였습니다.

1987년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 성형외과에 전임

강사로 부임하였고 1988년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에 처음 부임 후 30여 년간 교직에 몸 담아 수많은 제자들을 사랑으로 가르치고 환자들을 정성으로 돌보고 치료해 왔습니다.

2009년부터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성형외과장을 맡고 2013년부터는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성형외과학교실의 주임교수로 교실의 번창을 이끌고 대한성형외과학회 무임소이사, 연구교육이사, 재무이사, 감사, 총무를 지내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 이사장을 역임하며 학회 발전에 이바지하였습니다.

淨泉 서인석 교수님의 정년 퇴임식에는 은사님이신 이두형 전 대한성형외과학회 이사장 및 전 경희의료원 성형외과학교실 주임교수님, 김광석 대한성형외과학회 이사장님, 노태석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 이사장님, 오석준 전 한림대학교 의료원 성형외과학교실 주임교수님을 비롯하여 선후배님들, 수많은 제자들이 대학과 개원가에서 모여 자리를 빛냈습니다.

지나간 세월을 떠올리며 말씀하신 서인석 교수님의 진실된 퇴임사에 많은 하객들은 감동받았고 교수님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자들 모두 교수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한 명의 의사로서 인술을 다하며 연구활동에도 힘쓰며 나날이 발전하는 교실이 될 수 있도록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2019년 국내 학술대회 일정

2019년 5월

항노화성형연구회 월례세미나

일시 : 2019년 5월 7일

장소 :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신관 1층 청원홀

악안면윤곽성형연구회 2019년 1차 집담회

일시 : 2019년 5월 7일

장소 : 신용호타워 지하3층 세미나실

제9회 기초재건성형 학술대회

제7회 기초의학연구회 심포지엄

단체 : 대한성형외과학회

일시 : 2019년 5월 9~10일

장소 : 광주 전남대학교 용지관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제19회 춘계 연수 강좌

일시 : 2019년 5월 12일

장소 : 서울성모병원

지방성형, 지방줄기세포연구회 독습회

일시 : 2019년 5월 14일 장소 : 미정

2019년 5월

안면외상연구회 6회 심포지엄

일시 : 2019년 5월 18일

장소 : 천안 단국대학교병원

제4회 항노화성형연구회 해부 워크숍

일시 : 2019년 5월 18~19일

장소 :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수술해부교육센터

대한미세수술학회-대한수부외과학회

합동 심포지엄

일시 : 2019년 5월 25일

장소 : 부산항컨벤션센터

2019년 6월

2019 Seoul Symposium

일시 : 2019년 6월 2일

장소 :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임상제1강의실

유방성형연구회 2차 심포지엄

일시 : 2019년 6월 8일

장소 : 강남세브란스병원 3층 대강당

지방성형, 지방줄기세포연구회 독습회

일시 : 2019년 6월 11일

장소 : 미정

2019년 6월

제25차 영호남학회

일시 : 2019년 6월 14일

장소 : 부산

레이저성형연구회 심포지엄

일시 : 2019년 6월 16일

장소 : 미정

지방성형, 지방줄기세포연구회 오픈 모임

일시 : 2019년 6월 22일

장소 : 강남세브란스병원 3층 대강당

2019년 7월

아산성형 30주년 기념 심포지엄

일시 : 2019년 7월 6~7일

장소 : 서울아산병원 아산생명과학연구원 지하대강당

지방성형, 지방줄기세포연구회 독습회

일시 : 2019년 7월 9일

장소 : 미정

2019년 8월

항노화성형연구회 월례세미나

일시 : 2019년 8월 6일

장소 :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신관 1층 청원홀

안면외상연구회 집담회

일시 : 2019년 8월 30일

장소 : 미정

2019년 9월

대한미세수술학회 추계 미세수술 워크숍

일시 : 2019년 9월 1일

장소 : 부산 K성형병원

대전충청지회 심포지엄

일시 : 2019년 9월 5일

장소 : 미정

기초의학연구회 컨퍼런스 2019

일시 : 2019년 9월 6일

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유방성형연구회 3차 심포지엄

일시 : 2019년 9월 7일

장소 : 강남세브란스병원 3층 대강당

2019년 국내 학술대회 일정

2019년 9월

- 지방성형, 지방줄기세포연구회 독습회**
일시 : 2019년 9월 17일
장소 : 미정
- 추계 수부연구회-천공지피판연구회
합동 심포지엄**
일시 : 2019년 9월 21일
장소 : 광명성애병원
- 대한창상학회 교육 심포지엄**
일시 : 2019년 9월 27일
장소 : 미정
- 최소침습성형연구회 제28차 심포지엄**
일시 : 2019년 9월 29일 장소 : 미정
- 톡신틸러연구회 학술 심포지엄**
일시 : 2019년 9월 29일 장소 : 서울

2019년 10월

- 항노화성형연구회 월례세미나**
일시 : 2019년 10월 1일
장소 :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신관 1층 청원홀
-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제20회 추계 연수 강좌**
일시 : 2019년 10월 6일
장소 : 서울 성모병원(예정)
- 광주전남지회 제60차 학술대회**
일시 : 2019년 10월 11일(예정)
장소 : 전남대학교병원명학회관 소강당
- 부산경남지회 부산미용성형 심포지엄**
일시 : 2019년 10월 13일
장소 : 부산대학교병원
- 전북지회 2019 추계지회**
일시 : 2019년 10월 15일
장소 : 전북대학교병원
- 지방성형, 지방줄기세포연구회 독습회**
일시 : 2019년 10월 15일
장소 : 미정
- 대한미세수술학회 추계학술대회**
일시 : 2019년 10월 26일
장소 : 미정

2019년 11월

- 대한수부외과학회 추계 학술대회**
일시 : 2019년 11월 1~2일
장소 : 서울대 어린이병원
- 대한수부외과학회 연수강좌**
일시 : 2019년 11월 2~3일
장소 : 서울대 어린이병원
- PRS KOREA 2019**
제4회 Asian blepharoplasty forum
단체 : 대한성형외과학회
일시 : 2019년 11월 8~10일
장소 :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 지방성형, 지방줄기세포연구회 독습회**
일시 : 2019년 11월 12일
장소 : 미정
- 안면외상연구회 집담회**
일시 : 2019년 11월 15일
장소 : 미정
- 부산경남지회 추계학술대회 및 송년회**
일시 : 2019년 11월 29일
장소 : 부산롯데호텔

2019년 12월

- 항노화성형연구회 월례세미나**
일시 : 2019년 12월 3일
장소 :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신관 1층 청원홀
- 대전충청지회 심포지엄**
일시 : 2019년 12월 5일 장소 : 미정
- 지방성형, 지방줄기세포연구회 독습회**
일시 : 2019년 12월 10일 장소 : 미정
- 유방성형연구회 4차 심포지엄**
일시 : 2019년 12월 14일
장소 : 강남세브란스병원 3층 대강당
- 레이저성형연구회 심포지엄**
일시 : 2019년 12월 장소 : 미정

회원 경조사

- [부음] 2019.02.12. 하재성 회원님 빙부상
- [부음] 2019.03.11. 임기영 회원님 빙부상
- [부음] 2019.04.03. 정성균 회원님 빙모상
- [부음] 2019.04.12. 정성일 회원님 부친상

2019년 해외 학술대회 일정

2019년 5월

PLASTIC SURGERY RESEARCH COUNCIL (PSRC) ANNUAL MEETING

Dates: 5/2-5/5
Meeting Location: Baltimore, USA

WOUND HEALING SOCIETY ANNUAL MEETING

Dates: 5/7-5/10
Meeting Location: San Antonio, USA

ASSOCIATION OF BREAST SURGERY CONFERENCE (ABS)

Dates: 5/13-5/14
Meeting Location: Glasgow, Scotland

JSPRS 2019

Dates: 5/15~5/17
Meeting Location: Sapporo, Hokkaido,
Japan

2019년 5월

THE AESTHETIC MEETING (AMERICAN SOCIETY FOR AESTHETIC PLASTIC SURGERY)

Dates: 5/16-5/21
Meeting Location: New Orleans, USA

EUROPEAN ASSOCIATION OF PLASTIC SURGEONS (EURAPS) ANNUAL MEETING

Dates: 5/23-5/25
Meeting Location: Helsinki, Finland

TISSUE ENGINEERING AND REGENERATIVE MEDICINE EUROPE

Dates: 5/27-5/31
Meeting Location: Rhodes, Greece

AMERICAN SOCIETY OF OPHTHALMIC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RY (ASOPRS) SPRING MEETING

Dates: 5/30-6/2
Meeting Location: Atlantis, Bahama

ANNUAL MEETING OF THE NEW ENGLAND SOCIETY OF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ONS

Dates: 5/31-6/2
Meeting Location: Vermont, USA

2019년 6월

EUROPEAN WOUND MANAGEMENT ASSOCIATION

Dates: 6/5-6/7
Meeting Location: Gothenburg, Sweden

VEGAS COSMETIC SURGERY

Dates: 6/5-6/9
Meeting Location: Las Vegas, USA

WORLD SOCIETIES FOR RECONSTRUCTIVE MICROSURGERY

Dates: 6/12-6/15
Meeting Location: Bologna, Italy

INTERNATIONAL FEDERATION OF SOCIETIES FOR SURGERY OF THE HAND (IFSSH)

Dates: 6/17-6/21
Meeting Location: Berlin, Germany

CANADIAN SOCIETY OF PLASTIC SURGEONS (CSPS) 72ND ANNUAL MEETING

Dates: 6/25-6/29
Meeting Location: St. Johns, Canada

2019년 9월

AMERICAN SOCIETY FOR SURGERY OF HAND (ASSH) ANNUAL MEETING

Dates: 9/5-9/7
Meeting Location: Las Vegas, USA

2019년 9월

EUROPEAN BURNS ASSOCIATION (EBA) EDUCATIONAL COURSE

Dates: 9/6-9/9
Meeting Location: Helsinki, Finland

THE EUROPEAN ACADEMY OF FACIAL PLASTIC SURGERY (EAFPS) ANNUAL MEETING

Dates: 9/18-9/21
Meeting Location: Amsterdam, Netherlands

PLASTIC SURGERY THE MEETING

Dates: 9/20-9/23
Meeting Location: San Diego, USA

2019년 10월

TISSUE ENGINEERING AND REGENERATIVE MEDICINE ASIANPACIFIC

Dates: 10/14-10/18
Meeting Location: Brisbane, Australia

2019년 11월

AMERICAN ASSOCIATION OF PLASTIC SURGEONS (AAPS) ANNUAL MEETING

Dates: 11/3-11/7
Meeting Location: San Antonio, USA

향기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한성형외과학회보 원고를 모집합니다

대한성형외과학회보 제117호(2019년 7월 31일 발간 예정)에 실릴 회원 여러분의 원고를 모집합니다. 기고문, 시, 수필, 취미생활, 새로운 이론, 학술대회 활동사항, 학회에 대한 건의 및 홍보사항, 교실소식, 경조사항, 구인구직 등 어떠한 내용도 환영합니다. 회원들에게 유익하고 학회보의 성격에 합당한 원고는 가능한 한 게재하고자 합니다.

투고해 주신 학회 회원에게 소정의 원고료도 지급하오니 많은 투고 바랍니다.

대한성형외과학회보 제117호의 원고마감 시한은 2019년 7월 15일입니다.

대한성형외과학회보 원고 보내주실 곳

원고접수 대한성형외과학회 홍보위원회

전자우편 skymaker26@gmail.com (이경태 간사)

주 소 06351 서울시 강남구 일원로 81 삼성서울병원 성형외과
대한성형외과학회 홍보위원회 이경태 간사

전 화 02-3410-2235

팩 스 02-3410-0036

대한성형외과학회가 새롭게 도약합니다! 아름다운 사랑, 더 큰 학회

대한성형외과학회의 세 가지 목표

대한성형외과학회는 21세기에도 선진 기술보다 앞서가는 연구를 하고, 우수한 성형외과 전문의를 배출하며, 사회에 봉사하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전문 학술 단체가 되기 위해 세 가지 전략 목표를 세웠습니다.

1. 가슴 따뜻하고 올곧은 인성을 갖춘 의사로서 우수한 성형외과 전문의를 양성한다.
2. 사회에 봉사하고 정의로운 성형외과 의사가 된다.
3. 성형외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적극 홍보한다.

학회 발전기금 모금에 동참해 주십시오

대한성형외과학회에 기부 의사를 밝히신 분은 학회에서 모든 절차를 대행하여 드립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기금약정서(학회 홈페이지 다운로드)를 작성하여 학회 사무실로 송부

전 화 : 02-3472-4252

팩 스 : 02-3472-4254

이메일 : kprs@plasticsurgery.or.kr

- ② 지원신청서 접수 후 기부금 입금